

[서평문]

방상근. 2022. 11. 29. 『성종, 군주의 자격을 묻다』 (푸른역사)

이영재(한양대 학술연구교수)

성종의 시대를 태평성대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방상근 선생님의 최근 저작 『성종, 군주의 자격을 묻다』를 읽고 한명회, 폐비윤씨, 어우동, 연산군 등 조선 격동의 인물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토론자로서 지적 호사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신 사상학회 연구위원회와 방상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1. 어떤 책인가?

1.1. 이 책은 至高至純한 정치학자 방상근이 지독한 짝사랑을 끝내고 仁宗(저자에게는 成宗이 아닌 仁宗!)을 만인의 연인으로 떠나보내는 최고의 고별서이다.

- 에필로그: “필자는 성종과의 인연을 마무리하고 그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 오랫동안 짝사랑에 빠져서 눈이 멀고 귀가 먹고 정이 들었던 ‘나의 왕’과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니 서운한 마음이 든다. 하지만 더 이상 그를 ‘나만의 연인’으로 붙잡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에 대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그가 지닌 아름다운 매력을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라고 판단했다.”(399)

- 조자는 성종 승하 다음 달 1495(연산군 원년) 1월 14일 묘호를 정하는 자리에서 윤필상, 노사신, 신승선, 한치형 등과 다르게 성준, 성건, 홍위달, 이척 등이 묘호로 인종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종 시대는 ‘지극한 교화’의 시대였고, 그 시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묘호로 성成보다는 인仁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었다(386) ... 그의 치세를 나타내는 단어는 ‘성덕지화盛德至化’와 ‘인仁’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388).

1.2. 이 책은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다.

- 저자는 성종의 전기와 후기를 ‘1부 낡은 정치를 혁파하다’. ‘2부 포용하고 통합하다’로 표현했다.
- 이 책에서 성종 재위의 시기는 성종 재위 7년까지 초기, 중기는 친정을 시작한 재위 8년부터 18년까지, 말기는 재위 19년부터 25년까지로 구분된다.

1.3. 이 책은 초반부 지루하게(?) 시작하되, 점차 흥미를 돋우고(!), 실록에 기초한 탄탄한 사료 전개를 바탕으로 때로는 기존 연구와 다른 과감한 해석을 감행한다.

- “성종은 후에 경사에 널리 통하였고 사예와 서화에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

을 받았다 ... 호학의 군주와 관련한 기사는 실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470년(성종1) 6월 5일에는 원상 김질 등이 ...”(041)

- 토론자가 성종보다 많이 들어 익숙한 할머니 정희왕후, 어머니 인수대비, 폐비 윤씨, 아들 연산군, 장인 한명회 ... 어우동 등에 대한 연관이 성리학적 정치관의 정수인 “교화의 정치” 등과 어울려 등장한다. “성종은 풍속의 교화를 자신의 사명으로 자각하고 그 과업을 끝까지 관철하고자 노력한 군주였다.”(11)

- 과감한 해석 사례1) 이한우(2006)는 성종과 한명회 사이의 갈등에 대해 ‘한명회 없는 조정’을 생각할 수 없는 성종이 한명회에 끌려 다니는 것으로 해석했다. 반면 저자는 “이한우는 성종이 왜 그 올가미(올가미는 한명회가 사선을 넘는 배짱으로 들어갔다 나갔다는 조절하는 올가미로 해석-이한우)를 무작정 당기지 않는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그것은 ‘한명회 없는 조정’을 도저히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다. 그 올가미를 줄라 한명회를 일벌백계하는 방식으로 처벌하기 보다는 올가미를 죄었다 풀었다 하면서 그를 길들이는 것이 부작용이 적고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을 성종이 간파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성종은 자신의 권력 기반이었던 ‘한명회와 정희왕후의 파트너십’을 해치지 않으면서 한명회의 권세를 서서히 약화시킬 수 있었다”고 평한다.(219-220)

- “한명회에 대한 채도난마식의 공격은 성종 자신의 권력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며 정희왕후를 배려하는 데 있어서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것이었다.”(220)

- 과감한 해석 사례2) 선행연구는 공통적으로 사림과의 등장이라는 외재적인 변화 혹은 세대교체를 통해 비로소 성종 대에 새로운 정치가 시작되었다고 본다. 성종 대를 다룬 비교적 최근 연구들에서도 훈구와 사림의 대립 구도 하에서 성종의 사림과 등용을 통한 새로운 정치의 모색이라는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 성종이 김종직을 임명하여 사림세력을 등용하고 훈구세력을 견제함으로써 사림정치의 기반을 조성하였다고 보는 시각이 대표적이다.(145)

- 저자는 연산군 대 사화를 거친 후 중종 대 사림들이 성종 대를 ‘훈구와 사림’의 이분법으로 바라보던 시각이 기존 연구에 투사된 것으로 평가한다.(145)

1.4. 어우동 & 성종

- 어우동(어을우동)은 외교문서를 담당한 종3품 송무원 지사였던 박윤정과 어머니 정씨 사이에서 태어난 양갓집 규수였다. 시집에서 나온 뒤 성은 쓰지 않고 어우동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 동同+어을於乙 → ‘다 함께 어울린 여자’라는 뜻으로 쓰였을 수 도 있다.

- 고어의 열우다는 남녀의 교합을 뜻하니 ‘다 함께 교합한 여자’란 뜻으로 어을우동으로 불렸을 수 있다. cf) 세종 대 유감동 사례

- 남녀관계에서 어우동에 결코 뒤지지 않았던 유감동 또한 양반의 딸이었다. 조정 대신

- 부터 천민까지 수십 명의 남자와 간통한 죄목은 같았으나 결과는 달랐다.(103)
- 세종은 “여자들의 음행이 풍속을 어지럽히니 본보기로 죽여야 한다”는 대신의 강력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었다. 유감동은 곤장을 맞고 노비가 되었다.
 - 성종은 같은 죄에 대해 살려준 선례가 있다는 대신들의 많은 주장을 접하고도 어우동을 처형했다.(1480년 성종 11년 10월 18일_친정 5년째)
 - 기존 해석) ① 성종 대가 도덕을 강조하는 성리학적 지배질서가 더욱 공고히 자리를 잡아갈 때라서 성종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처리했을 것이라는 주장 ② 세종은 어진 임금이라 유감동을 살려주었는데 성종은 거친 성욕을 소유한 사람이라서 어우동을 죽였을 것이라는 주장
 - 저자) 세종 대 ‘유감동 사건’과 성종 대 ‘어우동 사건’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본다. 유감동은 사회풍속을 문란하게 한 사건이었다면, 후자는 왕실을 문란하게 한 사건으로 종실 간의 근친상간과 관련된 강상의 죄를 야기한 것이었다.(104)
 - 『성종실록』 대다수 사례에서 성종은 법에 입각해 일을 처리했는데, 왜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것일까? 성종은 미관말직인 박강창, 홍찬과 어우동에게는 형을 가하고, 공적이 뛰어난 자나 고관대학과 그들의 자제인 어유소, 노공필, 김칭 등은 증거가 부족하고 무고를 당한 것이니 석방하라고 하였다. 여러 신하들의 논쟁도 물리치고 무고나 증거 없음을 이유로 목살하였다.(105-106) : “풍속의 교화”
 - 저자도 “이 사건은 ‘풍속의 교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여성의 정절을 강요하고 남성에 비해 엄격하게 처벌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평가한다.(108)
 - 그런데 이 어우동 사건은 성종대에 있었던 하나의 헤프닝으로 보기 어렵다. 1480년 6월부터 10월 18일 어우동에 대한 처형이 집행되는 동안 조정은 어수선했다. 그 배경에는 1477년(성종 8년) 현석규 탄핵 사건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군자와 소인 논쟁이 자리하고 있다. 1477년 3월부터 폐비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107-108)
 - 저자는 성종이 어우동을 엄형에 처하지 않는다면 무너진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본다. “친정을 하면서 내건 통치이념인 효치와 교화는 명분일 뿐 실질은 없다는 비판을 받고 퇴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성종이 어우동을 사형에 처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109)
 - 성종은 어우동을 처형한지 약 20일 만에 숙의 윤씨(정현왕후)를 왕비(3번째)로 책봉했다. 성종은 어우동에 대한 엄한 처벌과 새 왕비의 책봉을 계기로 왕실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 교화의 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후 관료 사회에 교화의 새바람을 불어넣기 위한 성종의 지속적인 노력은 1485년(성종 16) ‘승출의 법’으로까지 이어진다.(110)

2. 성종은 어떤 왕인가?

2.1. 조선왕조에서 경연을 가장 많이 개최한 군주였다.(41)

- 자신을 용상에 올려준 할머니(정희왕후)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경연에 열의

를 보인 것이다.(40) “마음이 저절로 독실하게 좋아함으로 피곤한 줄을 알지 못하겠 습니다.”(41)

- 갑자기 즉위했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갖추기 위해 경연을 활성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성종은 왕이 된 이후에 정희왕후의 수렴청정이라는 수습기간 을 거치면서 친정을 준비했다(42).

2.2. 폐비 윤씨와 어우동의 가혹한 죽음

- 성종은 폭압으로 신하들을 대하지 않았다. 오직 폐비 윤씨와 어우동에게만 가혹한 죽 음을 내렸다. 성종은 1480년(성종11) 어우동을 처형하고 1482년(성종 13'년')에 윤 씨에게 사약을 내렸다. 1485년(성종 16)에는 풍속교화를 위해서 재혼한 여자의 자손 을 조정 관리의 반열에 끼지 못하도록 명령하였다.(111)
- 방상근 선생님의 변론이다. “왜 종실의 남자들은 엄형에 처하지 않았을까? 그럼 점에 서 차별이 아닐까? 하지만 다른 임금이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 왕실의 종친을 엄하게 벌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어우동과 놀아난 종친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엄벌에 처했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선이 신분제 사회이며 왕조 국가라 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다.”(113)
- 저자의 성종 변론은 궤변이 아니다. 동의가능하다. 다만 이 문제는 이후 교화라는 ‘양 날의 검’(114~)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복선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 저자는 세종시대가 政의 시대를 마감한다면 통치제도의 완성 이후에 전개되는 敎의 시대를 알리는 서막으로 성종의 (풍속의) 교화를 꼽는다.

2.3. 왜 ‘양날의 검’인가? : 교화, 군자와 소인의 이분법 → 유신의 교화

- 풍속의 교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정치의 도덕성을 강화하는 것은 성종 집권 후반 기나 중종 시대 조광조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왕권을 위협하거나 약화시킬 소지가 다분하다.(115) → 세 번째 왕비(cf. 재혼한 여 자의 자손)
- 성종 대 ‘임사홍 사건’을 계기로 ‘군자와 소인’ 논쟁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한다. 임사 홍이 처벌된 죄목은 봉당을 결성했다는 것이었다.
- 참고로 성종 대 봉당은 소인이 이해관계에 따라 취합하는 사당私黨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중종 대 이후 사림의 봉당론과는 차이가 있다. 성종에 이은 연산 군 대에 일어난 사화는 봉당을 소인이 이해관계에 따라 취합하는 사당으로 바라보는 부정적 봉당 관계에 근거해 있다.
- 성종 대 정치의 중요한 과제는 사육을 추구하면서 정치를 해치는 소인들을 어떻게 배제해야 하는가? 그들을 어떻게 교화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대두되었 다.(147)
- 유신의 교화를 선언하면서 성종은 첫째, 임사홍 사건으로 유배되었던 인물들에 대한 포용 시도하고, 둘째, 새로운 인재의 등용을 추진했다.(150-152) 셋째, 성종은 유신

의 교화를 선언한 이후 전조로 하여금 현부뿐만 아니라 마음 씀씀이를 관찰하도록 촉구하고, 전죄를 행함에 있어서 사사로운 정을 버리고 공도를 따라야 함을 역설했다.(154)

- 그런데 “유신의 교화에 가장 큰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들추어내야 한다는 데 있다.”(155)

2.4. 김종직의 승출의 법

- 1485년(성종 16) 승출의 법 제안(김종직)의 핵심은 기존 관료들 가운데 어질지 못한 자를 내치는 데 있다.
- 성종은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승출의 법을 시행할 것을 지시한다.(162) 각 도 관찰사에게 지방의 수령들에 대해 근무 평가를 엄격히 시행할 것을 지시하였다.(163)
- “승출의 법은 감화보다는 출척이라는 징계를 사용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성종은 예와 덕보다는 승출을 통한 교화를 시도한 것이었다 ... 성종은 대신과 대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화만으로는 교화가 불가능하며, 진퇴와 출척을 통해서라도 인간 내면에 있는 악함을 치유함으로써 공의와 선함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입장이었다.”(164)
- 토론자는 여기서 성종 교화의 한계가 드러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진퇴와 출척으로 과연 교화가 가능할까? 오히려 당사자들에게 원한을 품게 만드는 부작용이 드러나지 않을까? 실제 그 부작용은 연산군 대의 사화로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다.
- 저자도 지적하고 있듯이 무능하거나 탐오하기 때문에 내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지만 사리에 어두운 것과 말을 하지 않는 것, 학문과 책략이 없다는 것과 연약하고 용렬하다는 것은 징계 사유로 삼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165)
- 그런데 성종이 천견을 이유로 하여 퇴출된 자들을 복귀시킴으로써 지난 몇 달간 시행해 오던 승출의 법은 사실상 좌초되었다.(166)
- 승출의 법을 시행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어렵더라도 장기간 지속을 했다면 경험 속에서 일정한 기준이 만들어졌을 것인데 단기에 좌초함으로써 그럴 수 있는 기회도 상실한 것 아닐까?
- 성종은 승출의 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을 부정하지 않으며 그 법에 근거한 퇴출 역시 부득이하였다고 말한다. 다만 인심의 변화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허물이 있어도 개과 천선한다면 다시 쓰도록 하는 것이 교화에 있어서 더 바람직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것이 승출의 법을 둘러싼 논의 과정을 통해서 성종이 내린 결론이었다.(168)
- 저자는 승출의 법을 둘러싼 논쟁을 전후로 조선전기 정치사를 성종 시대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게 되는 분기점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한다. “승출의 법은 실패했지만 이후에 전개되는 교화의 정치에서 대신들의 탐오한 풍속에 대한 대간의 탄핵과 격렬한 비판이 가능해지고, 공공을 추구해야 한다는 정치의 대의가 분명하게 세워지게 되었다.”(169)

2.5. 유교적 법치와 「경국대전」, 유가인가? 법가인가?

- 유교는 지배자의 권력을 입법을 통해 제한하는 근대적 입헌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187)
- 이상적인 정치란 성인이 통치자가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본성을 회복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자학의 이론에서는 통치자의 권력 행사를 제도와 법으로 규제하여 견제해야 한다는 ‘입헌주의적 사고’가 싹트기 어렵다.(187)
- 그런데, 「경국대전」에 기반한 조선의 통치체제는 ‘예’보다는 ‘치’가 중심이 됨에 따라서 외유내법의 통치체제로 변질된 측면이 있다. 박현모(2003)는 경국대전의 성격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는 유가를 천명하면서도 실제로는 법가적 방식에 따라 작동된 것으로 평가한다.(189)
- 저자는 성종이 즉위 이후 「경국대전」에 대한 수정과 보완 작업, 조문에 대한 끊임없는 재검토를 요구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조선이 법가적 왕권주의보다는 유가적 법치와 교화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한다.(190)
- 이러한 성종의 평가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교화의 관철방식을 살펴봐야 하고, 조문을 재검했다는 것이 법가적 왕권주의를 탈피하는 것이었는지에 대한 다른 차원의 논거가 필요해 보인다.
- 토론자는 교화의 방식이 진퇴와 출척이라는 네거티브 방식을 사용했고, 앞서 말씀드렸듯 단기적으로만 활용되다 보니 당사자들의 복수심을 유발하고, 후일 성종의 포용책으로 문제가 더 불거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3. 질문과 궁금함

3.1. 이 책은 공정한가?

- 이 책은 오랜 시간 짝사랑에 빠져 있던 ‘나의 왕’에 대한 고백서이기에 태생적으로 성종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
- 저자도 고백했듯이 이 책을 출간하면서 “내가 더 이상 그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사실도 고려했다”고 밝히고 있다.(399)
- 그런데 토론자가 보기에 성종에 대한 저자의 편파적 애정이 곳곳에 드러나지만 이 책은 공정하다. 그 이유는 저자가 성종에 대한 애정을 가감 없이 몽땅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독자들에게 감추어도 될 정보일 수도 있다. 성종에 대한 짝사랑의 정보를 독자들에게 가감 없이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건대 이 책은 공정하다. 이제 평가는 독자들의 몫이 되었다.

3.2. 집필하시면서 여백을 해석하는 작업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가령, “자신을 용상에 올려준 할머니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경연에 열의를 보인 것이다”(40)와 같이 서술하는 대목들이 보이는데 집필 당시 이와 같이 해석과 판단, 평가가 필요한 대목에서 어려움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어떻게 이러한 판단들을 내릴 수 있었는지, 어려움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3.3. 연산군의 본성인가? 성종의 잘못인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방상근 선생님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시는 교화의 문제를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세종의 시대가 제도화의 시대였다면, 성종의 시대가 교화의 시대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교화의 이면을 보면 연산군의 어머니가 폐비되고, 사망하는 사건이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 재위 기간 동안 사화의 배경이 되는 사건들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성종시대 후기로 갈수록 점차 이 교화는 용서와 포용(기회주기) 차원으로 전환됩니다. 물론 방상근 선생님께서 이 책은 사화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성종시대의 태평성세가 어떻게 가능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자는 태평성세 이면의 부작용이 분명히 존재했고, 그 커져이 쌓인 부작용의 응축물이 연산군을 만든 중요한 원인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3.4. 방상근선생님께서는 성종의 교화 정치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동의합니다.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성종의 교화 관철방식이 네거티브 방식이어서 교화의 효과가 제대로 드러나지 못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 성종이 단기간에 교화의 방향을 완화했던 것이 교화의 실패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교화의 관철 방식을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아니면 퇴출방식일 경우 그 기준이 공감대를 만들정도까지 장기간 추진되었으면 어떠했을까하고 제안 드려 봅니다.

분주한 연말 밀린 마감일정 속에서도 토론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성종, 군주의 자격을 묻다』를 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책을 정독하고 난 지금은 방상근 선생님의 오랜 지적 사랑을 접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방상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상학회 선생님들께도 올 겨울 이 책을 꼭 접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